

1. 문제(1) 및 제시문

문제 1 <보기> 글에서 학창시절 선생님이 던진 질문에 대해 필자의 태도가 변한 이유를 제시문 (가), (나), (다), (라)를 모두 활용하여 설명하십시오. (1100자 ± 110자, 60점)

<보기>

아주 여러 해 전 윤리학 시간, 해마다 가을이면 선생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다. 만약 미술관에 불이 난다면, 렘브란트의 그림 한 점과 어차피 살날이 몇 해 남지 않은 할머니 가운데 어느 쪽을 구하겠는가? 그림이고 노년이고 별 관심 없던 우리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안절부절못하며 어느 해엔 생명을, 또 어느 해엔 예술을 놓치지 못해 골라잡았다. 이따금 그 여인은 내 할머니의 얼굴을 한 채 일상의 부역을 떠나 어떤 외풍 이는, 반쯤 상상으로 지은 미술관을 배회했다. 어느 해인가 난 재치있게 대답했다. 그 여인더러 결정하라고 하면 안 될까요? 내가 책임을 회피하는 성향이 있다고 선생님께서 적어둔 만한 답변이었다. 이 가을, 할머니 혹은 할머니와 다름없는 나이가 된 나는, 진짜 미술관에서 진짜 렘브란트의 그림 앞에 서 있다. 액자 속의 색깔들은 가을보다, 심지어 겨울보다 어둡다. 대지의 갈색은 대지의 가장 빛나는 원소이지만 화폭을 가로질러 불탄다. 이제 나는 안다, 여인과 그림과 계절은 거반 하나이고, 그 어느 것도 아이들이 구할 수 없다는 걸.

(가) 삼십오 년째 나는 폐지 더미 속에서 일하고 있다. 이 일이야말로 나의 온전한 러브 스토리다. 삼십오 년째 책과 폐지를 압축하느라 삼십오 년간 활자에 찌든 나는, 그동안 내 손으로 족히 3톤은 압축했을 백과사전들과 흡사한 모습이 되어버렸다. 나는 맑은 샘물과 고인 물이 가득한 항아리여서 조금만 몸을 기울여도 근사한 생각의 물줄기가 흘러나온다. 뜻하지 않게 교양을 쌓게 된 나는 이제 어느 것이 내 생각이고 어느 것이 책에서 읽은 건지도 명확히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 지난 삼십오 년간 나는 그렇게 주변 세계에 적응해왔다. 사실 내 독서는 딱히 읽는 행위라고 말할 수 없다. 나는 근사한 문장을 통째로 쪼아 사탕처럼 빨아 먹고, 작은 잔에 든 리큐어처럼 훌쩍대며 음미한다. 사상이 내 안에 알코올처럼 녹아들 때까지. 문장은 천천히 스며들어 나의 뇌와 심장을 적실 뿐 아니라 혈관 깊숙이 모세혈관까지 비집고 들어온다. 그런 식으로 나는 단 한 달 만에 2톤의 책을 압축한다.

(나) 언론 매체들은 어떤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하려는 목적에서 그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의 생생한 증언을 전하곤 한다. 증언을 들으면서 우리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는 게 과연 어떤 경험일지 상상하게 되는 한편, 이런저런 불행을 겪는 사람들에게 한층 더 동정심을 느끼게 된다. 물론 좋은 일이다. 그러나 다른 근거는 없이 증언만 가지고 해당 문제가 널리 퍼진 정도를 실제보다 과대평가하는 일은 옳지 않다. 증언이 우리의 공감과 동정심에 영향을 주는 일은 두말할 나위 없이 정당하지만, 그 문제가 만연한 정도에 대한 우리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정당화할 수 없다. 증언이란 아무리 감동적이라도 결국은 한 사람의 경험을 드러낼 뿐이다. 많은 경우에, 해당 문제가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를 추정하는데 있어서 증언자의 경험이 나 자신의 경험보다 더 많은 정보를 준다고 믿을 이유가 거의 없다. 한 사람에 대한 깊은 동정심 때문에 그런 사람의 전체 숫자를 선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

(다) 나는 많은 나무 조각을 망가뜨리고 나서야 직각으로 톱질하는 법을 익혔고, 훨씬 더 많은 나무 조각을 낭비한 후에야 직각으로 이음새를 만드는 법을 배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지식은 내 손과 눈, 그리고 근육 조직에 있지 도구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음새를 만들어주는 전동공구와 전동톱과 같은 기계는 지금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이런 기계로 누구나 적절한 각도로 나무판자를 자를 수 있다. 이 경우 장치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장치 자체에 기술이 내재화되고, 이것이 기계와 도구를 구분짓는다. 내가 만약 가구제작이나 집짓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면 전동톱과 공압 못박이를 구입할 것이다.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오로지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나, 아니면 이웃들을 돕기 위해, 혹은 가족이 작업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리 내에서 집을 고치기 위해 목수 일을 하므로 전동 기계가 아닌 손 도구를 고수한다. 내가 가진 도구는 대부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고, 아버지는 그 도구를 다루는 법도 가르쳐 주셨다. 내 작업대의 도구는 이중의 유산인데, 망치와 수평계와 톱에는 각각 아버지가 가르쳐주신 사용법이 구름과 같이 둘러싸여 있다.

(라) 길들인다는 말은 사육한다는 말과 같다. 인간은 처음으로 동물과 작물을 기르기 시작했을 때 이들의 성장과 행동을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했다. 그렇게 해서 얻는 이점은 명백했다. 길들인 생명체는 더 예측하기 쉽고 덜 위험해 자원으로 쉽게 이용할 수 있었다. 초창기 농경인의 삶은 생존의 문제에 좌우되었다. 그들은 생존에 필요한 음식을 거르지 않고 조달해야 했으며, 동시에 위협적인 대상으로 바라보던 환경과 자신들 사이에 보호막을 두면서 자신들이 약한 존재라는 느

을 줄여 나아가야만 했다. “농경의 관념에서는 야생에 존재하는 것들은 길들여진 존재의 적이다.” 길들이기 과정은, 아이들의 이미지가 약하고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 바뀔과 동시에 자녀를 잘 키우려는 부모의 근심이 커지면서 이 두 현상이 강하게 상호작용한 결과에 일부 기인한다. 두 현상에 존재하는 공통분모는 공포와 통제이며, 이제 이 두 가지 심리가 부모의 양육 방식을 지배하고 있다. 자녀의 미래에 대한 지나친 걱정으로 이른바 ‘과잉양육’ 현상이 생긴 부모는 각종 과외활동으로 아이들의 자유시간을 빼곡하게 채워 넣는다. 신세대 학부모, 아이의 안전과 행복을 바라는 이른바 ‘헬리콥터 부모’는 자녀의 주변을 맴돌며 어려움이 닥치면 언제든지 내려앉아 구조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헬리콥터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라면 가리는 일이 없다. 아이들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 싸우며, 아이들 스스로 성공 또는 실패를 겪을 자유를 용납하지 않는다.

2. 문제(2) 및 제시문

문제 2 <보기>는 1974년에 발표된 소설의 일부이다. 밑줄 친 부분에 드러난 화자의 심리 상황을 파악하고 그 사회적 원인을 제시문 (가), (나), (다)를 활용하여 설명하시오. (900자 ± 90자, 40점)

<보기>

이 집은 내가 살고 있지만 우리 집이 아니고, 이 집이다. 이 집은 친정집이고 나는 출가외인이기 때문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가난뱅이라는 걸 알고도 결혼을 꽤히 승낙한 부모님도 우리가 셋방으로 나가는 건 반대하셨다. 친정에서 몇 년이고 거저 먹여주는 줄 테니 남편 월급을 고스란히 모았다가 집을 사서 나가라고 불렀었다. 우리는 못 이기는 척 그대로 했다. 친정 식구는 다 친절하고 불편한 거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널찍한 사랑채에서 우리는 거저했다. 올케도 있었지만 눈치 보일 건 조금도 없었다. 아직도 아버지가 경제권을 쥐시고 집안 살림을 도맡아 꾸리셨고 나는 아버지의 귀한 고명딸이었다. 올케 처지나 내 처지나 알고 보면 비슷했다. 올케도 집을 사서 딸살림을 나려고 오빠가 버는 돈을 열심히 모으고 있었다.

우리는 시누이 올케 사이지만 공범자끼리처럼 단짝이었다.

친정살이로서 겪어야 할 서러운 일, 야속한 일은 정말 하나도 없었다. 다만 남편을 기다리는 저녁 시간이 끔찍했다. 차임 벨을 누르는 소리는 식구마다 특색이 있어서 '딩,뎡,뎡'소리만 듣고도 누군지를 알 수 있었다. 아버지의 그것은 아버지의 목소리처럼 느리고 점잖았다. 오빠는 강하게 누르고는 이어서 대문을 발길로 쿵 차는 버릇이 있었다. (중략)

다만 내 남편이 누르는 차임 벨 소리를 알아듣고 나가서 대문을 열어 주는 것은 내 일이다. 언제부터 그것이 내 몫의 일이 되었는지 그건 분명치 않다. 아마 남편이 누르는 차임 벨 소리가 하도 희미해 웬만큼 귀가 밝지 않으면 못 알아듣겠고, 그래서 내가 그 소리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보니 그렇게 된 모양이다. 나는 내 남편 특유의 그 가냘픈 '딩' 소리를 들을 때마다 처갓집 문전에서 겁쟁이로 위축돼, 겨우 스위치에 손을 대다 말고 떼는 내 남편을 생각하고 몽클하도록 측은하다.

(가) 남성과 여성은 신체 조건이나 생리 구조 등 여러 측면에서 다른 점이 많을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도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이 다르게 규정되어 왔다. 이러한 남녀 간의 차이를 이유로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이 차지하는 지위, 권력, 위신 등에서 나타나는 격차를 성 불평등 현상이라고 한다. 가부장제란 가장이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가족 구성원을 지배·통솔하는 가족형태로, 가부장제적 사회 구조를 성 불평등 현상의 주된 원인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 이 관점에서는 가부장제가 성별분업을 통해 여성을 차별해 왔으며 가부장제적 사회 구조를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이나 법률 제정을 강조한다. 한편, 성별에 따른 차별적인 사회화 과정을 성 불평등 현상의 원인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 이 관점에서는 아들과 딸을 다르게 기르는 부모의 양육 태도, 전통적 성역할과 규범을 내면화시키는 교육, 성 불평등 의식을 양산하는 대중매체 등이 성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본다.

(나) 우리 역사에서 그 이전까지 볼 수 없었던 강력한 가부장제의 토대가 마련된 것은 호주제의 도입에 힘입은 바가 크다. 조선 후기에 성리학의 영향으로 부계 혈통 의식이 공고해진 상태에서 일제 강점기에 호주제가 도입되면서 추상적인 법률상 개념인 '가(家)'가 등장하였다. 가(家)는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집'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누가 그 가(家)에 속하는가는 실제 함께 사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 부가입적(夫家入籍) 원칙에 따라 아내는 남편의 가(家)에 입적하게 되고, 자녀는 부가입적(父家入籍) 원칙에 따라 아버지의 가(家)에 입적하게 된다. 이와 같은 원칙에 의거해 민법상 하나의 가(家)가 성립된다. 호주제에 대한 찬반 논의가 민법 제정 이후 쉼 없이 이어져 왔으며, 2005년 3월에 호주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다)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여성이 결혼 후 남성의 부모의 집에 들어가 사는 부거제(父居制)의 관습이 있었다. 그로 인해 결혼 시 주택을 마련하는 데 있어 남성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강조되었으며, 이는 가족주의적 문화와 맞물려 신랑 부모의 역할로 확장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결혼 후 부부가 양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새로운 곳에서 거주하는 신거제(新居制)가 우세한 오늘날은 과연 어떨까? 아래의 표는 2019년 26세에서 40세 사이 남성과 여성의 신혼주택 마련을 위한 자금조달 유형에 대한 조사결과이다.

	자립형 (단위: %)					의존형 (단위: %)			
	남편	아내	공동	대출	합계	남편부모	아내부모	양측부모	합계
남성결혼연령									
26-30세	29.8	1.9	10.9	19.9	62.5	30.7	4.9	1.9	37.5
31-35세	36.2	4.2	9.8	20.2	70.4	22.2	3.6	3.7	29.6
36-40세	41.2	7.3	13.1	16.8	78.5	15.6	3.2	2.8	21.6
여성결혼연령									
26-30세	35.5	3.2	9.3	19.3	67.2	24.5	5.0	3.3	32.8
31-35세	34.8	4.9	12.5	20.4	72.6	21.7	2.9	2.8	27.5
36-40세	51.4	13.0	12.7	8.7	85.8	8.2	3.5	2.6	14.2

(※ '자립형'은 신혼주택 마련에 있어 자기자금과 대출을 합친 금액이 전체 자금의 50% 이상인 경우를,
'의존형'은 부모의 지원이 50%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